

안승현 대령 취임 환영법회 봉행

제6탄약장 호국장영사(지도법사 이상강 포교사)는 1월 10일 '무사고 부대달성 및 제19대 창장 안승현 대령 취임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前 포교원장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을 비롯해 안승현 창장, 서유현 서기관 등 부대간부와 불자장병, 포교사, 남원 선원사 신도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삶,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삶 속에 능동적으로 사바의 세계를 살아야 한다"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생활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도영 스님과 남원 선원사 신도회는 준비해간 햄버거와 떡, 과일, 음료수를 불자장병들과 함께하며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도, 문화재 관리 민선 국보·보물 새로신칭

전북도(도지사 김완주)는 "새로 구성된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도내 문화재 관리·보존·활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월 13일 발표했다.

2009년 전북도는 무주 관음사보살상, 남원 유양암 석불 등 4건의 문화재를 새로 지정했다. 또,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는 국보로,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좌상과 선운사 비로자나삼불벽화는 보물로 지정할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미륵사지출토 금동향로는 한국에서 처음 출토된 수족형(獸足形) 향로이자 출토지가 확실한 향로이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중간고리로 해당하는 8세기경의 수작 문화재로 손꼽힌다.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좌상은 조각승 무염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며, 선운사 비로자나삼불벽화는 국내 유일의 삼불 후불벽화이자 대형 후불벽화이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향후 보존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 발굴작업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관리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문화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기자

“목빈대처하며 화합해 나가자”

태고종 종정 신년하례법회 선암사 대응전서 봉행

태고종도들의 화합과 증흥발전을 서원하는 신년하례법회가 봉행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1월 12일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 대웅전 앞마당에서 종정 혜초스님을 배알(拜謁)하고 신년하례를 드리는 경인년 종정예하 친견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승정원·원로회의·총무원·중앙종회·중앙사정원·전문종무기관·전문위원회와 원로종진 간부스님과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장 및 교구 간부스님·전국 각 사암 주지스님·전국비구니회·전국교인전법사회·전국신도회·청년회·봉원사, 선암사 대승스님 등 200여 종도스님을 비롯해 노관규 순천시장 등 순천시 주요기관장 내빈이 동참했다.

법회는 지월 스님과 선암사 합창단의 연주로 시작된 식전공연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선조사 스님에 대한 묵념, 상축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종정스님에 대한 신년하례와 법어, 인사말, 사홍서원이 이어졌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말세에는 모든 종단이 혼란스럽더라도 목빈대처(默賓對處)해야 한다. 제각각 입이 있다고 설왕설래하지 말고 목빈대처하며 화합해서 종단의 대내



1월 12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된 태고종 종정 신년하례법회 모습.

외적 일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신년교시를 내렸다.

이어 스님은 <금강경오가해>에서 함허(涵虛) 대사가 말한 "땀 흘려 모르고 흐르는 쓰레기 같은 시간과 끝없는 들만 같은 공간,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은 존재하고 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허망을 내어 새해니 묵은해니 하는 말을 한다(歷千劫而不古 亘萬歲而長今 多經海岳相遷 幾見風雲變態)"는 말을 인용해 "시간은 어느 누가 주는 것도 무엇이 보내는 것도 아님을 자각해 정견(正見)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단축원문을 인용해 "중생이 부처님께 고하면 다 이뤄지는 것이 빈 골짜기에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

고, 중생이 부처님께 원을 세우면 소원대로 이뤄지는 것이 맑은 물에 달이 비추는 것 같다"며 종도들의 정진을 강조했다.

종무원장 인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용맹과 부지런함의 상징인 호랑이처럼 종도들도 확고한 자신감과 굳은 각오로 종단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안으로는 내실을 다져가는 한 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신년하례를 계기로 종도 모두가 단합하고 화합하여 종단의 발전과 증흥의 원력이 모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도 환영사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위한 중

단화합으로 분열과 투쟁을 종식하고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불자들과 순천시민의 품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실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9일,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도 익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경인년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익산 사암연합회장 백운사 우성 스님과 대웅화사 혜산 스님, 정각사 정산 스님 등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천식 국회의원, 이한수 익산시장과 각 사암 신도회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불교신도회 박중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미륵사지 사리장엄이 나투시면서 지역불교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서로 화합하며 성숙한 신행활동을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여도록 한층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웅화사 주지 혜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익산지역의 불자들은 큰 복을 받고 태어난 불자들이다"며 "지난해의 묵은 때를 벗고 새해 원대한 뜻을 세워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종단의 발전과 증흥의 원력이 모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도 환영사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위한 중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공생봉사단

그늘진 곳 찾아 대비원력 실천

한창 눈보라가 몰아치던 구급 11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에 솜이불과 전기매트를 짊어지고 전북불교회관으로 들어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치는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공생봉사단(지부장 원광, 봉사단장 정진열) 단원들이다. 이들은 지난주 후원자 대회

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48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북지부 공생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서 예쁜 미소와 함께 급식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서원노인복지회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이들의 빼놓을 수 없는 활동중 하나이다.



구급 2일 후원자대회때 공생봉사단 사진. 일광 스님(지구촌공생회 전북공생봉사단 운영위원, 육련암 주지)과 함께.

에서 마련한 비용으로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에게 전달할 솜이불과 전기매트를 전달하러 왔다.

지구촌공생회는 2003년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의 원력으로 창립됐다. 이곳에서 활동하던 전북지역 회원들은 보다 활발하고 내실있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2008년 7월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를 결성했다. 해외활동과 함께 국내 복지활동에도 힘써 보자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금산사 부주지 원광 스님을 지부장으로 모시고 정진열 공생봉사단장, 정상권 대외협력단장, 강만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북지부가 결성됐다. 전북공생봉사단도 조직해 기존의 지구촌공생회 활동 외에도 지역의 경로복지사업과 자원봉사활동 후원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중이다.

전북지부는 지구촌공생회가 중점적으로 후원·참여하고 있는 미안마, 라오스 등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은 물론 제3세계 우물파기 사업 등에

노인양로시설인 김재 회관원과 군산 보현오양원에서는 다른 이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진 곳까지 빼놓지 않고 청소하고 살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지역의 사찰에 대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공생봉사단 조직과 함께 김재 흥복사와 완주 육련암의 연밭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한편 주변에 녹차 나무를 심어 차밭을 조성하는 일에 일조하기도 했다.

정마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여름철에도 만사를 제쳐두고 사찰로 달려 나와 진일로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살피고 잡목과 잡초를 제거 하는 것도 공생봉사단의 몫이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복지공동체 실현과 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구촌공생회의 설립정신에 걸맞게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관음보살의 대비원력을 실천하는 지구촌공생회의 공생봉사단이 있음으로 지역사회 불교봉사활동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차게 된다. (063)275-0037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애인 위한 고용사업장 운영

재활사업 모델로 20억 투입 건설 중

광주지역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사업장을 불교계 사찰이 운영하게 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구급 29일 광주 남구에서 건립중인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지원사항로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를 선정했다.

사업장은 대규모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다수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장애인 재활사업 모델로 20억원(국

비 10억, 구비 10억)이 투입돼 광주 남구 송하동에 전체면적 2126㎡, 지상 1층 3개동으로 건설 중이다.

사업장이 완공되면 주로 농산물과 김치 등으로 생산농가와 계약을 맺고 농산물의 가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게 된다.

지장 스님은 "장애인을 비롯해 이주여성, 일할 수 있는 노인 등 일자리 소외계층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사회참여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대 스님들 유지 받들어...

선운사, 13일 기념비 제막식 봉행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태허 스님 열반 12주기를 맞아 연곡·금곡·태허 스님 부도와 태허 스님 부도비 제막식을 1월 13일 선운사 부도전에서 봉행했다.

행사에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관음사 재근 스님, 연곡문도대표 재연 스님, 금곡문도대표 성락 스님, 태허문도 대표 법경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고창 선운사 부도전에서 봉행된 부도비 제막식 모습.

법만 스님은 "선대 스님들께서는 아무런 표식도 남기지 말라하셨으나 문종 스님들의 배려로 연곡·금곡·태허 스님의 부도와 비를 모시게

돼 감사하다"며 "스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서로 화합하고 수행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운사는 제막식에 앞서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은 포살법사로 모시고 월안 동안계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씩뚝과 지압을 간편하게



씩뚝 지압봉 (특허 및 디자인 출원)

황동재질의 금도금 수제 명품! 뜯 자국, 화상 걱정 없습...



일반형 99,000원 고급형(음각) 128,000원 고급형(양각) 148,000원



씩뚝목 씩(30개입)



일체형 씩뚝지압봉

- 구성
- 씩뚝 지압봉 (16.5cm)
- 휴대용씩 (2개입) + 씩뚝 목 + 씩 (30개입)
- 씩 - 추가 별도구매 가능

이런 분께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수행 정진할 때 또는 경전 읽을 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
- 무릎 통증, 허리통증이 있으신 분.
- 노안이 시작되었거나 진행중이신 분.
- 시력저하로 고민이신 분.
- 손발이 차신 분.
- 코가 자주 막혀 고생하시는 분

씩뚝지압봉은 휴대가 간편하여 여행이나 출장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온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구입하실 때는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 14001인증업체
다우정밀 서울시 중구 인정동 168-1
☎ (02)2263-6853 / 011-348-6853